



# “‘항쟁·투쟁’ 광주 상징성, 예술에 담겠다”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제시카 모건

英 테이트 모던 큐레이터... “새로운 실험정신 반영할 것”

“광주가 가지고 있는 항쟁과 투쟁, 시민참여의 역사를 부각시켜 제10회 광주비엔날레를 새로운 작품, 새로운 전시, 새로운 정신을 반영한 행사로 치를 것입니다.”

내년 창설 20주년을 맞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으로 선임된 영국 테이트 모던 큐레이터 제시카 모건(Jessica Morgan·45) 감독은 지난 26일 광주비엔날레재단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체계를 뒤엎는 색다른 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로 남미나 중동 지역에 관련

된 전시를 연구·기획해 온 그는 광주비엔날레가 추구해온 실험성을 높이 평가 하면서도 새로운 실험정신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제시카 모건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전시 기획에서 벗어나 남미나 중동 등 현대미술의 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기획력을 인정받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을 친숙하게 풀어내고 있다”고 예술총감독 선임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제시카 모건 예술총감독과의 일문일답.

-제10회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임명

### ◇제시카 모건은?

▲1968년 영국 출생 ▲캠브리지 대학 미술사 학사 ▲런던 커튼스 미술연구소 석사 ▲시카고 현대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보스턴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수석 큐레이터 ▲제1회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아트 페스티벌 큐레이터 ▲영국 테이트 모던 큐레이터

된 소감은.

▲광주비엔날레의 혁신적인 정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개인적으로 광주비엔날레의 오랜 팬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2014년 비엔날레는 10회째로, 창설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광주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춰, 앞서 열린 광주비엔날레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 미술관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변화’가 가지고 있는 희열의 순간을 강조할 것이다.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겠다.

-광주비엔날레를 평가한다면.  
▲세계적으로 많은 비엔날레들이 열리고 있지만 뚜렷한 주제의식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선임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들을 보면 광주비엔날레의 전통을 알 수 있다. 항상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데 적합한 큐레이터들이 예술감독을 맡아왔다.  
-현대미술계에서 비엔날레의 의미.  
▲비엔날레의 중요성은 지역성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적 문제에 대한 담론을 지역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기존 기관이나 미술관에서 하기 힘들다. 하지만 비엔날레는 2년

마다 새롭게 무엇을 개발하고 보여줌으로써 시대에 맞는 이슈를 선점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변화, 저항, 실험적인 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주는 매력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변화는 힘들지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도전은 즐겁다. 큐레이터들에게는 큰 책임이 있다. 역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안적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광주의 역사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저항정신, 역사적, 지역적인 특성은 예술과도 맞닿아 있다. 예술에서도 큰 변화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저항과 변화의 본질을 광주의 상징성과 접목시키겠다.

-향후 계획은.  
▲그동안 남미,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연구를 해왔다. 광주비엔날레는 극동 아시아지역을 비롯해 특히 한반도, 그리고 광주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라카미 하루키 ‘색채가 없는... 파올로 코엘료 ‘아크라에서...’ 댄 브라운 ‘인페르노’

## ‘빅3’가 온다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파올로 코엘료, 댄 브라운 등 ‘빅3’가 신작을 들고 국내 독자들을 찾아온다.

출판불황을 한 방에 날려줄 대어(大魚)에 목말라 있던 국내 출판계는 ‘빅3’의 귀환에 벌써부터 들쭉이고 있다. 이 가운데 출판계 최대 화제작은 단연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장편소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무와, 그의 순례의 해’.

하루키가 3년 만에 내놓은 이 소설은 일본에서 발간 6월 만에 발행 부수 100만 부를 기록했다. 발간 12일 만에 100만 부를 찍은 전작 ‘1Q84’의 판매 속도를 능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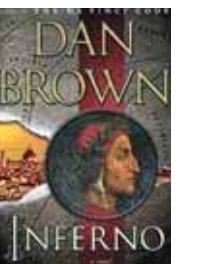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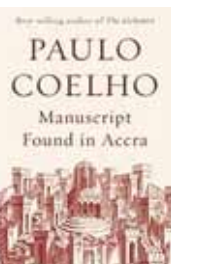
‘1Q84’를 펴낸 문학동네를 비롯해 김영사, 민음사, 웅진씽크빅, 문학사상사 등 내로라하는 국내 출판사들도 관련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을 가져갈 국내 출판사는 다음 달 말쯤 결정 날 것으로 알려졌다.

코엘료는 이번 소설에서 11세기 말 십자군의 공격을 눈앞에 둔 예루살렘 사 랫들과 한 현인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고 울림 있는 삶의 깨달음을 전한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은 코엘료의 트위터 글을 모은 ‘마법의 순간’을 이달 말 발간한다. 코엘료는 전 세계적으로 730만 명에 이르는 팔로어를 거느린 ‘파워 트위터어인’.

“당신은 제일 어려운 일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까요.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일 말입니다” 등 삶의 잠언을 트위터 단문에 담았다.

‘다빈치코드’의 저자 댄 브라운의 신작 ‘인페르노’(Inferno)는 다음 달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먼저 출간된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모티브를 얻은 ‘인페르노’는 초판만 400만 부를 찍었을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빈치 코드’의 주인공이었던 기호학자 로버트 랭던 교수가 이번엔 이탈리아를 무대로 모험을 펼친다. 국내 주요 출판사들이 ‘인페르노’ 판권을 놓고 물밑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젊음과 열정이 녹아 있다 ‘K-pop 아트’



정승규 작 ‘일랑가몰라’

푸른 하늘을 본지도 참 오래되었지



강동호·김 혁 등 8명 참여·5월1일~31일 무등현대미술관

‘뽕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 오늘 빛고을 시민문화관

젊은 청춘들이 K-pop 음악으로 열정을 피워내고 있다. 몇몇 젊은이들의 열정은 전세계에 한류 열풍을 지켰다. 이제는 K-pop 음악을 넘어 K-pop 아트에서 한류 열풍이 꿈틀대고 있다.

무등현대미술관은 K-pop 아트의 한류 열풍을 모색하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무등에서 K-pop을 보다’전을 연다. 광주지역 팝아트 작가 강동호·김혁·배귀영·배수민·서영기·이명우·이조호·정승규씨 등 8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인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가장 창조적인 에너지인 ‘열정’을 K-pop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한다.

K-pop 음악처럼 쉽고 친숙한 팝아트 작품에는 작가들의 즐거움과 유희함, 젊음과 열정, 끼와 개성이 녹아 있다.

전시를 기획한 무등현대미술관은 “K-pop 아티스트들의 생명력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가 전시장을 찾는 관객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열정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223-6677. /김경인기자 kki@

‘뽕 만드는 공연-김원중(사진)의 달거리’(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4월 행사가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푸른 하늘을 본지도 참 오래되었지’다.

가수 김원중을 비롯해 보헤미안 소울(피아니스트 이상록, 소프라노 유현민), 느티나무 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가 출연한다.

또 작가 주홍씨가 샌드 애니메이션을

선보이며 무대 미술 참여 작가는 화가 강동권씨다.

프롤로그(최성식·서민정·박강민)의 노래발달에서는 관객들이 신청한 곡들을 들려주며 미디어 작품으로 남도인의 삶의 모습을 담은 ‘영상강’ 테마 영상을 만날 수 있다.

입장료는 없고 공연 전·후 로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모으면 된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뽕공장에 보내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